

녹색생활 실천마을, 전남 10곳 뽑혀

순천 왕지 현대아파트·구례 원촌마을 등…작년보다 3곳 늘어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녹색 생활 실천마을(Green 마을)' 사업 공모에서 순천 왕지 현대아파트, 구례 산동 원촌마을 등을 도내 10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7개 마을이 선정됐으나 올해는 3개 마들이 많은 10개 마들이 선정됐으며 목포 하당 우성아파트, 순천 왕지 현대아파트와 송촌아파트, 장흥 어산마을 등은 지난해 우수마을로 평가돼 2년 연속 선정됐다.

녹색생활 실천마을(Green 마을)로

지정된 마을에서는 주민 스스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단소자감을 위한 에너지와 자원 절약, 녹색 교통, 녹색소비 등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게 된다.

특히 단소인트제 가입, 플러그 빼기, 일제 소등행사, 절전형 멀티탭 보급 및 LED조명 교체, 장바구니 이용, 녹색 나눔 장터 운영, 재생 비누제작 판매 등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 절약을 생활화 하고 텃밭 조성, 마을 환경 정화, 폐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

개한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녹색 생활 실천마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업비(1000만원 내외)만 지원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녹색생활 실천교육, 홍보자료 제공, 우수사례집 발간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마을에는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새마을운동지회와 함께 녹색생활 실천마을 주민 대표 및 담당공무원 합동교육과 우수 사례지역 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나주교육지원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클릭 한번으로 해결하세요.'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기평)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4대 교육비의 지원절차를 대폭 개선, 학부모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온클릭 시스템'을 운영한다.

'온클릭 시스템'은 저소득층 자녀가 4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동안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편스 등을 통해 신청해 왔었던 불편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특히 이번 '온클릭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해당 학생의 신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아 위화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온클릭 시스템'의 경우 3월 2일부터 16일까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est.go.kr)에 접속, 학생정보를 등록하고 고등학교 학비·학교급식비·방과후 학교·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곡성 육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은 지난 28일 육과농협학교 체육관에서 운영공개 및 조합원 보답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사업성과와 올해 사업운영 계획을 공개하고, 평양예술단 공연 등 조합원 한마당 잔치를 가졌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2030 농업인 맞춤형 농지지원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매입자금 대출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는 도내 2030세대 젊은 농업경영인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한다.

전남지역본부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 및 농지매입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만 20~만 39세 이

통해 5년 동안 최대 5㏊의 농지를 5~10년간 장기임대할 수 있고, 농지를 매입할 경우 관련 기금에서 연 2%로 최장 30년간 응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농지은행 포털(www.fbo.go.kr)에서 약식을 다운 받아 해당지역의 각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행운 전남지역본부장은 "전업농 위주로 지원하던 농지를 젊은 농업인에게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창업농 등 젊은 인력에 농지매입·임대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축 계획중인 고객님께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온수물! 도 태양열로~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 설치계통합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NAVER 강남산업
법인등록번호: 409-8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족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족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족석 프리미엄 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포츠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전남도 무형문화재 한눈에 본다

화순 한천농악·담양 죽렵장 등

4종 기록화 도서·영상물 발간



도록 했다.

전남도는 기록도서와 영상물을 도내 공공도서관과 대학, 문화단체 등에 배포해 일반인과 학생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인화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은 사라져가는 전남 민속문화를 보존, 계승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나머지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화순군은 볼거리 천국"

문화유산 정비·탐방길 조성…관광객 유치 총력

화순군은 올해 문화유산 전승 발전과 관광자원 발굴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관광객 유치에 밤벗고 나선다.

◇ 고인돌, 화순 대표 문화유산= 화순지역은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화순고인돌 유적지를 비롯해 '천불천탑'의 운주사, 쌍봉사, 규봉암 등 많은 사찰과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광조 적려유하비, 화순적벽, 도곡온천, 명승으로 지정된 '임대정 원립' 등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또한 중국 현대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정을성 선생이 다녔던 능주초등학교와 중국 당나라 고관이었던 유미운과 딸 보안이 창건했다는 유마사, 개전사와 같은 중국 관광객들이 큰 관

있으며,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에 포함돼 산교육장으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를 잇는 4km 구간에 총 596기의 고인돌이 분포해 선사체험 교육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군은 관내 86개 누점장을 적극 활용해 '누정 탐방길'을 조성하고 '오감길', '김삿갓길', '무돌길', '치유의 길길' 등 주변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홍이식 화순군수는 "화순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고장"이라며 "700여 공직자와 군민들이 지역 문화 바로 알리기에 적극 나선 결과 관광객 유치는 물론 화순의 이미지 쇄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세계 2위 선사 컨테이너선
내달부터 광양항 신규 기항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인 MSC사의 1만4000TEU(1TEU =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3월부터 광양항에 신규 기항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는 "MSC사가 1일부터 광양항 대한통운 터미널에 신규 기항해 유럽항로를 운항하게 된다"고 밝혔다.

광양항에 유럽항로가 증설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5년만이다.

이를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마

케팅 활동반을 구성해 지난해부터 싱가포르 지역본부와 접촉해 왔으며, 최근에는 스위스 본사를 방문해 초대형 선박 입항이 가능한 광양항의 입지여건을 알리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

동을 펼쳐왔다.

MSC사는 앞으로 1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13척을 투입해 영국 웰링턴스토우, 네덜란드 로데르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양항을 잇는 항로를 매주 1항차씩 운항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